

擔 當	정인교 박사
	FTA 연구팀장
電 話	3460 - 1208

우리 나라의 FTA 추진 현황과 시사점 - 중국, 일본과의 비교

主要內容

- 최근 일본·싱가포르간 FTA 체결, 중국·아세안간의 FTA 추진 선언으로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전세계적인 FTA 체결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일본은 올 1월 싱가포르와의 FTA를 공식체결함으로써 지역주의에 참여하게 되었으나, 대부분의 농산물과 일부 석유화학제품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다른 국가와의 FTA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불완전한 FTA임.
- 중국의 경우 ASEAN과의 FTA를 향후 10년내 체결한다는 입장이나, 중국 내부의 정치경제적 사정과 10개국에 달하는 ASEAN내의 이견조정 어려움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.
- 우리 나라는 현재 농업 분야를 비롯하여 전 분야를 포함하는 한·칠레 FTA를 협상중에 있으며, 일본과는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공동연구가 끝나 민간 차원에서 FTA를 협의 중임. 한편, 태국 및 뉴질랜드와는 공동 연구가 진행 중이며, 미국 등 여타 국가와의 FTA 체결도 논의되고 있음.
- 지난해 우리 정부는 ASEAN+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FTA 추진을 제안하고, 한-ASEAN FTA의 타당성 여부도 검토하고 있음.
- 우리 나라는 1990년대부터 FTA 정책을 검토·추진해왔으나, 농업 등 민감 분야에 대한 개방 문제로 FTA 정책 추진이 더딘 편임.
- 국내이익집단간 이해조정을 원활히 하여 전 분야가 포함된 모범적인 형태의 FTA가 구축되도록 해야 할 것임.
- 이 경우, 우리 나라는 미국, 동북아 및 동아시아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형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.
- 특히,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FTA 정책 추진이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하였고, 동아시아 FTA 제안에 외국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정부는 FTA 정책 수행을 위한 국내의 기반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임.

2002. 1.

. 우리 나라의 FTA 추진 현황과 전망

1. 우리의 FTA 추진 개요 및 배경

□ 우리 나라는 그 동안 주요 교역국과 FTA를 추진해 왔음.

- 현재 한·칠레 협상이 진행중이며, 일본과는 한·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공동연구가 완료됨에 따라 민간 차원의 비즈니스 포럼을 운영 중에 있음. 태국 및 뉴질랜드와는 FTA의 효과에 관한 공동연구가 진행중임.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 협정의 체결 가능성을 타진 중임.

□ 이는 세계적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FTA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라는 인식의 기반에서 출발하였음.

- 세계적 지역주의의 확산이라는 대외적 요인과 더불어,
- 우리의 높은 대외 의존적 성장 구조, 우리 기업의 해외 거점확보 및 외국인 투자 유치의 확대, 경제 구조의 개선과 선진화, 더 나아가 국민후생의 증대와 타국과 국제 정치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타국과의 FTA는 필수불가결함.

2. 우리 나라의 FTA 추진 과정

- 1990년대 초 북미자유무역협정(NAFTA)이 추진될 당시 우리의 FTA 추진이 본격적으로 논의됨.
- 1990년대 중반부터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FTA 정책 연구
- 금융위기 이후 정부 차원에서 FTA 추진을 본격적으로 검토

- 1998. 11. 5. 대외경제조정위원회(국무총리주재)에서 한·칠레 FTA를 시작으로 자유무역을 추진키로 공식 의결. 이에 따라 FTA 추진위원회(위원장 : 외통부 통상교섭조정관)를 구성.

가. 한·칠레 FTA

- 1999. 9. APEC 정상회담 중 한·칠레 정상 협상 개시 공식 선언
- 1999. 12. 칠레 산티아고에서 제1차 협상 시작.
- 2000. 12.까지 4차례 공식 협상 개최.
- 2001. 3. 상품양허안에 대한 실무협의 개최, 입장 차이 조율.
- 2001. 10. APEC 정상회담 중 양국은 고위급 회담 개최 및 FTA 협상 지속 추진에 합의.
- 2002. 2. 칠레와의 제5차 FTA 협상 개최 예정.
- 그 동안 정부는 한·칠레 FTA 협상을 위해 15개 정부 관계 부처 및 10개 연구소, 단체의 실무자 130여명을 5개 작업반 및 13개 세부분과로 구성하여 작업을 지원해 옴.

나. 한·일 FTA

- 1998. 10. 대통령 방일시 한·일 FTA 공동연구 추진 제의
- 1998. 11. 한일 통상장관 회담시 양국의 공동 연구 진행하기로 합의.
 - 우리 측 :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
 - 일본 측 : 아시아경제연구소(IDE)

- 1998. 11. 2000. 4. 한·일 FTA 공동 연구 수행
- 2000. 5. KIEP-아지켄(IDE) 한·일 FTA 연구결과 1차 국제심포지엄 개최(서울)
- 2000. 9. 2차 국제 심포지엄 개최(동경)
김대통령 방일시 한·일 FTA 추진을 위한 민간 포럼 설치 및
실무 협의 가속화 합의
- 2001. 한·일 FTA 비지니스포럼 결성하여 민간 차원에서 FTA추진
방향 논의
- 2001. 9. 제 1차 한·일 FTA 비지니스 포럼 합동회의 개최(서울)
- 2002. 1. 제 2차 한·일 FTA 비지니스 포럼 합동회의 개최 (동경)

다. 한·미 FTA

- 1980년대 중반부터 논의 시작
- 1989. 미 국제무역위원회(USITC), 『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
에 대한 검토보고서』 발표. 대상국으로 싱가포르, 한국, 대만
을 선정.
- 1990년대 중반 우루과이라운드 농업양허안에 대한 논란으로 FTA 논의
중단.
- 2001. 5. 한·미 FTA 공청회 개최.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미국
기업들의 우려 전달.
- 2001. 10. USITC 최종보고서 발간, 한국과의 FTA 긍정 평가.

- 2001. 12. 17. 제 2차 FTA 정책연구세미나 “한미 FTA의 주요 이슈와 정책시사점” 개최

라. 기 타

한 · 중 · 일 FTA

- 1999. 11. 3국 정상 마닐라 회동시 동북아 3국간 FTA 체결에 대한 관심 표명. 이후 KIEP 등 연구기관의 동북아 FTA 경제적 타당성 연구결과 발표.

한 · 태국 FTA 공동 연구

- 1998. 11. APEC 회의 시 양국 통상장관은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
- 1999. 11. 2001. 3. 공동연구 수행
- 2001. 3. 양국 연구기관간 보고서 교환

한 · 뉴질랜드 FTA 공동 연구

- 1999. 9. 한 · 뉴정상회담시 민간연구기관에 의한 공동연구 수행하기로 합의
- 2000. 3. 2001. 8. 공동 연구 수행
- 2001. 8. 양국 민간연구기관간 연구 결과 교환

3. 우리 나라의 향후 FTA 추진 전략과 전망

□ 그 동안의 연구결과와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FTA

체결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.

- 지역무역협정이 다자무역규범(WTO)에 합치되어야 하고 다자 무역체제 목적 달성에 보완적이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.
- 한·칠레 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며,
- 한·칠레 FTA 타결 이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이익에 부합되는 FTA 대상 후보국을 면밀히 선정하여 한·일, 한·중·일, 한·미 FTA를, 아세안과의 FTA 추진과 병행해 나갈 것임.

. 일본의 FTA 추진현황과 향후 전망

1. 일본의 FTA 추진 현황

- 2002년 1월 14일 일본은 싱가포르와 ‘일·싱가포르 신시대 경제연계협정(JSEPA, The Japan-Singapor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)’을 체결, 동북아 국가중 최초로 FTA를 체결하였음.
- 일-싱가포르 EPA는 관세 및 비관세 철폐 등 무역 자유화·원활화, 투자 및 서비스 시장 개방, 기준인증의 상호인정(MRA), 전자상거래 협력, 인적이동 자유화 등 양국간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나,
- 일본의 최대민간분야인 농수산물에 기존의 무관세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농수산물을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WTO의 질적인 기준에 위배되고 있음.
- 이 밖에 석유화학 제품 중 일부의 관세철폐도 금번 EPA 협정에서 유보되었음.
- 따라서 일·싱가포르 EPA는 싱가포르와 같은 기존 자유무역국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특이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, 동북아 최초의 FTA 체결이 향후 역내 지역통합논의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.
- 한편, 일본은 싱가포르와의 EPA가 체결된 14일, 싱가포르에서 일본-ASEAN 포괄적 경제연계구상을 정식으로 ASEAN 측에 제안하여 주목을 받았음.
- 이는 1977년 후쿠다 수상이 발표한 후쿠다 독트린을 계승하는 것으로서, 일본과 ASEAN이 공존공영을 모색해 나가자는 기본이념에 입각해 있음.

- 일본의 구조개혁과 ASEAN 각국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개혁 추진지원과 번영의 확보, 빈곤삭감과 분쟁예방 등 세계적 과제해결을 위한 안정의 확보, 미래를 위한 협력 등 3개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하고 있음.
 - 나아가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을 염두에 두고 일본과 ASEAN뿐 아니라 한·중을 포함하며 호주와 뉴질랜드도 시야에 둔 ‘동아시아 확대 커뮤니티’ 구상을 제시
- 일본의 금번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구상은 중국의 대ASEAN 접근에 자극 받은 바 크나, 자국 농업에 대한 개방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적 제약 조건에 묶여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추진의 구체적 내용과 일정이 결여된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.
- 금번 구상을 제안한 이유는 지금까지 일본은 자국기업의 동 지역 진출을 토대로 경제산업적 유대관계를 긴밀히 해 온 ASEAN에 대해 중국이 향후 10년 이내 FTA 체결에 합의하자 이 지역에서의 주도권 상실을 우려했기 때문임.
 -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은 싱가포르와의 EPA 체결 때와 마찬가지로, ASEAN와 FTA를 추진할 경우 자국의 최대 민감 분야인 농수산물에의 타격이 매우 심대하여 이를 포함하는 본격적인 FTA 추진은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다.
- 따라서 일본이 일단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있어서는 외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으나, 일본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내부적 합의가 선결되지 않는 한 본격적인 FTA 추진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.

. 중국의 FTA 추진현황과 평가

1. 중국의 FTA 추진 현황

가. 중·아세안 FTA

- 2001년 11월 6일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중·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아세안은 향후 10년 안에 자유무역협정(FTA)을 체결한다는 데 합의하였음.
- 2000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중·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FTA를 제의한 이후 1년만에 이해 당사국의 정상들이 이에 합의한 것임.
- 중·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FTA 뿐만 아니라 농업, 정보통신 기술, 인력개발, 상호투자 촉진, 메콩강 개발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으며, 아세안 국가 중 최빈국인 라오스, 캄보디아, 미얀마에 대해 중국이 특혜 관세를 부여하기로 결정함.
- 중국이 아세안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뉨.
- 첫째, 지역경제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지역주의의 세계화 현상에 동참하고자 함임.
-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통해 경제체제를 글로벌 체제로 바꾸는 변화를 꾀하고 있는바, 이러한 변화의 한 조류로 지역경제공동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임.
- 또한 WTO 가입으로 인한 수입시장 개방효과를 최소화하고 수출선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지리적, 문화적 연대성을 가지고 있는 아

세안과의 FTA 추진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함.

- 둘째, 아세안과의 FTA 추진은 상호간의 이익이 상충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 협상 추진이 쉬울 뿐 아니라 상호이익이 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임.
- 각국간의 산업 연관성이나 생산 및 소비 탄력성을 감안할 때 중국과 아세안의 경쟁산업은 극소수에 불과함.
- 또한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타협이 요구되는 농업부분의 경우 중국과 아세안의 주요 교역품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FTA 타결에 최대 걸림돌이 없는 상황임.
- 중국과 아세안의 인구는 17억이며, 2001년 3/4분기까지 중국과 아세안의 교역액은 30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.8% 증가하였음. 이는 최근 세계경제 침체로 주요 교역국인 미국, 일본, 한국 등과의 교역이 둔화 내지 소강상태를 보였음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됨.

나. 동북아 FTA

-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 또는 한·중·일 FTA(이하 동북아 FTA)가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.
- 중국은 산업간 경쟁력 부분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뒤처지기 때문에 동북아 FTA 효과가 중국 산업의 피해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- 또한 중국은 동북아 FTA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농업 부분을 예상하고 있는바,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보완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농업부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시장개방 합의와, 역

사적, 외교적 긴장관계 해소 등 비경제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할 것임.

□ 동북아 FTA 추진은 중국 산업의 경쟁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, 아세안과의 FTA 결과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.

- 중·아세안 FTA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경우 그 동안 명목상으로 존재하였던 중화경제권이 제도권으로 수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바,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은 중화경제권을 배경으로 동북아 FTA 추진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됨.

2. 중국 FTA 추진의 현 단계 평가

□ 하지만 중국이 관심을 보이는 중·아세안 FTA 조차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.

- 정상회담에서도 밝혔듯이 협상기간을 10년으로 예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.
- 또한 중국과의 양자간 협상뿐만 아니라 아세안 전체 회원국간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임.
- 중·아세안 FTA에서 아세안이 주장하는 상호보완성과 동북아 FTA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상호보완성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바, 중국과 아세안과의 협상과정을 주시하면 상호보완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용이할 것임.

. 평가

- 외형적으로 보아 일본이 동북아 3국 중 FTA 체결에서 가장 앞서 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, 농업이 제외된 특이한 형태의 FTA라는 점에서 동 FTA를 기반으로 다른 지역과의 추가적인 FTA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.
- 또한 중국은 ASEAN과의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, 양 지역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진전을 보기는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.
- 일본이나 중국보다 FTA 체결을 먼저 추진했던 우리 나라는 칠레와의 FTA 체결이 지연되고 있어, FTA 정책의지가 약한 것으로 비취질 수 있으나,
 - 국내 이해집단간 이해조정 활성화를 통해 농업을 포함한 가장 모범적인 형태의 FTA를 구축함으로써, 칠레외 다른 국가와의 FTA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
 - 이 경우, 우리 나라는 미국과의 FTA뿐만 아니라,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, 동아시아 FTA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.
- 현재 우리 정부는 칠레와의 FTA를 우선 타결하고, 미국, 일본, 중국, ASEAN 등 거대경제권과는 추후 추진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나, 이들 거대경제권과의 FTA도 칠레와의 FTA와 병행할 필요가 있음.
 - 또한 FTA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시나리오를 구성하고,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신속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.
 - 특히 우리 정부가 지난해 ASEAN+3 정상회의에서 제의한 동아시아 FTA에 대해 외국의 관심이 높으므로,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내의 기반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임.